



“우리가 받았던 사랑만큼”

- 후원자에게 받은 사랑 다시 전하러, ‘아웃리치’ 떠난 코피노 아이들 -



메신저인터내셔널의 코피노 사역이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메신저 돌봄의 코피노 멤버 중, 가장 큰 아이는 에스더(27세)로, 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로 근무하다, 현재는 다시 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자랑스런 코피노 1대 선배입니다.

코피노 후원 사역이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아이들이 점차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 중심의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에 그쳐서는 안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해 메신저에서는 특별 사역으로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매주 공부방을 통해 성경 및 영어공부, 악기 및 합창 연습을 해오던 코피노 센터의 아이들이 지역 빈민가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찾아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며 스텝으로 섬기는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5월에 있었던 1차 ‘아웃리치’를 먼저 다녀온 아이들이(7명), 공부방 친구들에게 좋은 후기를 들려주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고, 이에 10월에 훨씬 많은 이들(20명)이 모여 2차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한국의 후원자들로부터 10년 넘게 큰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라온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찾아가 그 따스한 마음을 다시 전하는 것으로 사랑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계속...)





(사) 메신저인터내셔널

- 법인성립일 : 2009년 10월 5일
- 등록기관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사역 대상 및 지역 :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코리안 필리피노) 아동 및 그 가정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려져 빈민가에서 차별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아동들”



- 사역 목적 : 코피노 아이들이 출생의 배경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다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격려하여, 장차 사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함



- 사역 목표 및 기대 : ‘교육’과 ‘자활’을 목표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엄마들에게는 자활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주고자 함

- 사역 내용 : 교육 지원 (공부방, 한글·악기학교, 합창단, 태권도 시범단, 장학금)
자활 지원 (구호 및 생계지원,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자립 지원금)

- 담당 사역자 : 필리핀 앙헬레스 센터 (조근목, 최주영 선교사)
필리핀 세부 센터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

- 함께하는 사람들 :

- 이 사 장 : 김춘호
- 사무총장 : 김명기
- 이 사 : 김정순, 박동찬, 송병석, 신상두, 이인선, 이인재, 이정준, 김변호, 장대근, 홍정민, 존리
- 감 사 : 유봉환





2023 월별 주요 사역

	본부 행정	사역지
1월	- 메신저 이사회(2023 사역 논의) - 전자부품연구원, 중고 컴퓨터 본체 14대 후원	- 양헬레스 및 세부 센터 - 팬데믹 후, 각학교 전면 대면수업 시작 - 각 학교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2월	-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 정산 업무 - 주무관청(외교부) 및 국세청에 보고(2~4월)	- 에스더(27세) 특별 장학금 지원 - 법학대학원 박사과정(3학년2학기)
3월	주무관청(외교부) 및 국세청에 보고(2~4월)	양헬레스 센터, 1차 '부모교육세미나'
4월	- 주무관청(외교부) 및 국세청에 사업보고(2~4월) - 전년도 결산서류공시 및 기부금활용실적 명세	- 양헬레스 센터, 1차 '선배 초청 상담의 시간' - 신앙생활, 공부방법, 진로상담 등(에스더, 한나)
5월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지원금 후원	- 양헬레스 센터, 1차 '아웃리치' 행사 진행 - 라할 크리스천교회
6월	- 메신저 이사회(신임이사 추천) -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 제출(국세청)	- 각 학교 기말고사 후 방학 - 다음 학기 장학생 추천
7월	- 신임이사 4명 등기 (주)비케이비전, 의류 후원(2천여벌) (주)링코제일, 학용품 후원(800여개) - 정동제일교회 특별후원	- 각 학교 장학금 지원(장학생) - 태풍으로 개학 8월로 연기됨
8월	- 후원금 및 후원자 관리시스템 업체 변경 작업 - 허요한 학장님, 샌들 후원(300컬레)	- 각 센터, 학용품 지원 - 신애 안과 검진 및 돌봄 사역
9월	- 후원관리시스템업체 변경완료(휴먼소프트웨어) - 메신저 이사회(내년 사역 논의)	- 양헬레스 센터, '패밀리 데이' 진행 - 양헬레스 센터, 2차 '선배 초청 상담의 시간' - 세부 센터, 민재 특별 지원
10월	- 허요한 학장님, 샌들 후원(300컬레)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수원순복음교회 특별후원	- 양헬레스 센터, 2차 '아웃리치' 행사 진행 - 말루빠 크리스천교회 - 양헬레스 센터, 2차 '부모교육세미나' - 세부 센터, 공부방 그룹 아웃팅(막탄 뉴타운 비치)
11월	- 갈릴리교회 사역 홍보 예배 -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갈릴리교회, 새중앙교회 특별후원	
12월	- 소식지 및 아동DB 제작, 발송 - 일산광림교회, 과천약수교회 특별후원 - 메신저 이사회('23년 결산 및 '24년 예산 논의)	각 센터, 성탄 행사 진행





센터별 사역 보고 | - 세부

토요모임 개설로 더욱 다양해진 커리큘럼

- 저녁과 주말에도, 교육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

■ 대면 학기 개학 후, 오후반으로 운영 중인 공부방

2023년부터 모든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평일 오전부터 운영해오던 기존 센터의 공부방 수업을, 아이들의 하교 시간 후인 오후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기에,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식사제공과 함께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 곁에서 학교 숙제를 도우며 학업을 지원해주었고, 이 외에도 미술, 악기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체능수업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요한, 지수 등 장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 주말모임 추가로 다양해진 활동, 선교팀 방문 및 바닷가 아웃팅도

평일 수업 시간이 줄어들자 토요모임의 개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에 주말에는 성경 및 한글 공부, 악기 실습 등 학업 외 다양한 실내외 활동을 마련하여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에는 수서안디옥교회에서 청년 선교팀이 방문하여 함께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각 학교의 시험이 끝난 10월에는 막탄의 바닷가로 소풍을 떠나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껏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별 사역 보고 II - 앙헬레스

짙어온 시간의 길이 만큼 깊어진 배움의 열정

- 한국어, 영어, 신앙, 역사 분야까지 다각적 교육의 경험 시도 -

■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해지고, 영어 성경 통해 신앙도 깊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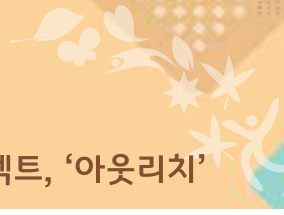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한글학교 및 악기수업, 성경공부 및 합창연습을 해오고 있는 앙헬레스 센터의 모임이 벌써 10년을 넘어가며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졌습니다. 처음에 수줍어하고 자신없어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선생님 및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실력에 더해, 매주 성경을 묵상하며 깊어진 신앙을 토대로 이해심도 넓어졌는데, 아이들이 더욱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클락 뮤지엄 방문과 모든 것이 풍성했던 패밀리 데이!

공부방 수업 외에도 다양한 외부 활동과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4월에는 봄 소풍의 시간을 겸해, 근처 클락에 있는 뮤지엄에 방문해 앙헬레스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9월에는 ‘코피노 패밀리 데이’를 열어 모든 멤버와 그 가족들이 만나 예배로 시작하여 음식을 함께 먹고 공연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한국으로부터 온 티셔츠 등 의류 선물들과 학용품 및 기념품 등을 나누며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 메신저 특별 사역 - 나눔 프로젝트, '아웃리치'

수혜자에서 후원자로의 아름다운 성장

-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삶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는 삶으로 ! -



■ 빈민가에 세워진 개척 교회에서 성경학교 스태프로 섬겨

올해 앙헬레스 센터에서는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과 함께 지역 빈민가에 세워진 현지인 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일입니다. 매주 연습해온 찬양과 워십 실력에 더해 직접 조물조물한 손으로 작은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지게 단체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후, 5월에 먼저 1차로 '라할 크리스천교회'로 7명의 아이들이 성경캠프에 참석해 스태프로 섬겼습니다.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만들기 시간에는 자신보다 작고 어린 아이들의 옆에서 말씀 카드 꾸미기도 도와주었습니다.

■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했던, 나눔 그리고 성장의 시간

물론 처음 계획은 센터에서 준비했어도, 나머지는 전부 코피노 멤버들이 끝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지속성인데, 1차에 다녀온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후기를 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당시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이, 2차 방문을 적극 희망함으로 10월에 다시 '말루빠 크리스천교회'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100명의 현지인 아동 섬김). 무엇보다 그동안 받기만 하던 수혜자에서, 섬기는 후원자로 성장하게 된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2023 메신저 특별 사역 - 성장 프로젝트, '부모교육 세미나', '선배초청 상담시간'

혼자서는 두려운 길, 든든한 인생 선배와 함께 !

- 코피노 맘, 코피노 후배들과 양육 및 진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



■ 부모교육 세미나, '엄마는 가정의 빛'

‘엄마가 처음이라서...’ 대부분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있는 코피노 맘들에게 양육 및 교육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항상 방법을 잘 몰라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앙헬레스 센터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부모교육세미나를 열었는데, ‘엄마는 가정의 빛’을 주제로 성경을 통해 길을 찾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는 궁금한 것들이 많은 엄마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3월과 10월, 2차 세미나 까지 마친 후에는 참석한 엄마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습니다.

■ 선배 초청 진로 상담의 시간

대학 졸업 후 회계사로 일하다 현재 로스쿨에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있는 에스더(27세)는 코피노 후배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힘든 배경을 지녔지만 신앙과 긍정의 힘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룬 에스더를 센터로 초청해 아이들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초대된 에스더 동생, 한나(25세) 역시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며 현재 고등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기에 더욱 전문적인 영역에서 깊이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피노 성장 스토리 | ‘우리의 꿈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더(ESTHER KIM HYUN, 27세)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목회자의 꿈”

에스더는 메신저 전체 멤버 중 제1호 코피노 선배입니다. 에스더는 메신저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고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던 중 변호사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이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해오다 사법시험(2024년)을 앞둔 현재(3학년 2학기)는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코피노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 매번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후배들에게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앙이 홀름하여 최종 꿈은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한나(Kim Hyun Hannah, 25세)

“대학교수가 되는 꿈”

에스더의 동생인 한나는 언니의 영향을 받아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상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정신 의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대학원 심리학과에 진학하여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 역시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현재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언니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코피노 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을 살려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킴(Yakim Xander Kim, 24세)

“공학도,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꿈”

야킴은 고등학교 시절,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대학들을 탐방한 후로는 줄곧 한국으로 와서 일하며 사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올 수 없게 되자, 현지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 후 다시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을 옮겨 공부했습니다. 야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국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며 어렵게 삼남매를 홀로 돌봐주시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데, 이로 인해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잠시 한국으로 나와 샷시 공장에서 일하며 사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코피노 성장 스토리 II ‘우리의 꿈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자베스(Elizabeth Geejae Yanara, 17세)

“미국 대학 진학 후 외과 의사가 되는 꿈”

야킴의 동생인 엘리자베스(야니)는 메신저와 처음 만났을 때 수줍음이 많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잘 웃지도 않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토요학교를 통해 한글 공부와 악기 수업(플룻)에 열심히 임하던 중, ‘세인트 폴’이라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미국 국제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꿈만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늘 성적 우수상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와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교우들과의 사이도 좋은 야니의 최종 꿈은, 졸업 후 미국 대학에 진학하여 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Kim Hanel, 22세)

“바이올린을 켜는 컴퓨터 공학도”

하늘이는 성실하고 밝은 아이입니다. 하늘이네 가정은 연로하신 할머니와 뇌성마비가 있는 삼촌, 그리고 이들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와 함께 모두 네 식구입니다. 하늘이는 공부를 잘해 메신저 장학생으로 오랜기간 지원을 받으며 바기오에 있는 SLU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올해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역시 졸업 후에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학업 이외에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바이올린도 능숙하게 연주하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에렘(Erem, 19세)과 은(Eun 17세)자매

“경찰관을 꿈꾸는 태권 소녀들”

우애 깊은 자매인 에렘과 은은 메신저를 통해 오랜 기간 태권도 수업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재능을 살려 검띠 단증까지 쉽게 딴 후에는 한국 국기원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에렘과 은 자매는 매번 열리는 지역 태권도 대회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언니인 에렘이 먼저 여성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대학 경찰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가정부로 일하며 힘들게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오신 엄마는 가끔씩 딸이 보내오는 군사 훈련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아플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늘 자랑스럽고 뿌듯해하십니다.



신애 특별 후원 보고

■ 사진으로 보는 신애의 한 해



2017년 KBS 다큐 방송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애(18세)의 올 한해 소식을 사진을 통해 전달합니다. 아기 같던 신애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이제 본격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와 몸집은 달라졌어도,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세부 공부방에서는 이제 최고참 선배로, 지혜롭게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있고,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나 패밀리데이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본부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한 후원자분이 우연히 신애의 영상을 보시고, 눈이 좋지 않은 신애를 위해 시력 맞춤 안경을 제작해 사무실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잘 포장된 안경 선물은 세부로 보내져 담당 사역자분을 통해 신애에게 전달됐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눈에 꼭 맞는 예쁜 안경을 쓴 신애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어 보입니다. 그렇게 올 한해도 후원자분들의 특별한 사랑으로, 햇살 만큼 환한 미소가 신애의 얼굴을 가득 채워 갑니다.



<늘 긴장되는 안과 검진의 시간>



<세부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워~>



<학교 체육대회 행사에서 학우들과 도시락을 함께>



<언제나 감사한 후원자분들께 보내는 정성스런 편지>



행복한 동행 | 공지사항 & 기도제목

■ 행복한 동행

협력 사역자 (단체)

- 언론사 : 국민일보 (2013. 04~ 업무협약 '아시아 희망 프로젝트')
- 업무협약단체 : 국민일보(사)국민여성리더스포럼, 나눔재단 월드채널, 사색의향기문화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월드리더스재단, 지앤엔 글로벌 문화재단
- 사역협약교회 : 강릉중앙교회, 대림교회, 만석교회, 목양교회, 의왕우리교회
- 후원기업 : (주)선광티앤에스, (주)우주텔레콤, (주)리딩아이, 법무법인 루츠, 라이텐셰이드
- 후원교회 : 강릉중앙교회, 문호교회, 송도좋은교회, 압구정예수교회, 열림교회, 예수열방교회, 의왕우리교회, 이룸교회, 주다산교회, 갈릴리교회, 홀리씨즈교회(담임목사 서대천)

2023 특별 후원자 (단체)

- 일반 : 지앤엔글로벌문화재단,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다빈 님, 이환의 님, 류준혁 님, 유희정 님
- 선교 :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천영태), 수원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요한), 일산광림교회(담임목사 박동찬), 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황덕영), 갈릴리교회(담임목사 김영복), 과천약수교회(담임목사 설동주)
- 장학 : 사단법인 해피엘, 남윤석 교수님(한국산업기술대), 장성/최경희 님, 이영혜 님, 전현숙 님(신애후원)
- 현물 : 전자부품연구원, (주)비케이비전, (주)링코제일, 허요한 학장님(아세아선교신학교), 지파운데이션

■ 공지사항 & 기도제목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메신저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단단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 내년도 사역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각 센터 임대)
3. 1만원 후원에 동참하는 정기 후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 공지 안내

1.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필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2. 필리핀 메신저센터 도서관에 비치할 영어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본 소식지는 과천약수교회(담임목사 설동주)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우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512호(광장동114 크레스코)
T. 02-722-0645~7 F. 02-737-5997 www.messengerin.com
(사)메신저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춘호 사무총장 김명기